

美 2024.4월 고용지표 내용 및 뉴욕 금융시장 반응

1. 고용지표 내용

- 4월 중 비농업부문 취업자수(Non-farm Payrolls)는 전월대비 17.5만명 증가 [Bloomberg 시장예상치 +24.0만명]
 - 민간부문 취업자수는 16.7만명 증가[+19.3만명 예상]하였으며 정부부문 취업자수는 0.8만명 증가
 - 세부 업종별로는 교육·의료(+9.5만명), 도소매(+3.0만명), 운송창고업(+2.2만명) 등은 증가하였으나 전문기업서비스(-0.4만명)는 감소
 - 직전 2개월 취업자수는 2.2만명 하향 조정(24.2월 -3.4만명, 3월 +1.2만명)
- 경제활동참가율(62.7% → 62.7%)[예상 62.7%]은 전월과 동일하였으며 실업률(3.8% → 3.9%)[예상 3.8%]은 상승
 - 가계조사에서 경제활동인구가 8.7만명 증가한 가운데, 이 중 취업자수는 2.5만명 증가, 실업자수는 6.3만명 증가
 - U-6 실업률*은 전월 7.3%에서 7.4%로 상승
 - * 최근 4주간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경제적 이유의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를 실업자로 간주
-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은 전월대비(0.3% → 0.2%)[예상 0.3%] 및 전년동월대비(4.1% → 3.9%)[예상 4.0%] 모두 하락
 -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전월대비 감소(34.4시간 → 34.3시간)[예상 34.4시간]

주요 부문별 비농업 취업자수 증감

	'24.2월	3월	4월	'20.3월 이후 누적
비농업 전체	23.6	31.5	17.5	597.7
- 민간부문	18.1	24.3	16.7	557.3
(건 설)	2.4	4.0	0.9	60.4
(제 조)	-0.9	-0.4	0.8	18.1
(도·소매)	2.0	2.5	3.0	44.6
(운수·창고)	3.1	0.6	2.2	79.7
(전문·기업서비스)	0.6	1.0	-0.4	150.5
(교육·의료)	8.0	8.8	9.5	161.7
(여가·음식숙박)	2.6	5.3	0.5	-0.2
- 정부부문	5.5	7.2	0.8	150.5

실업률 및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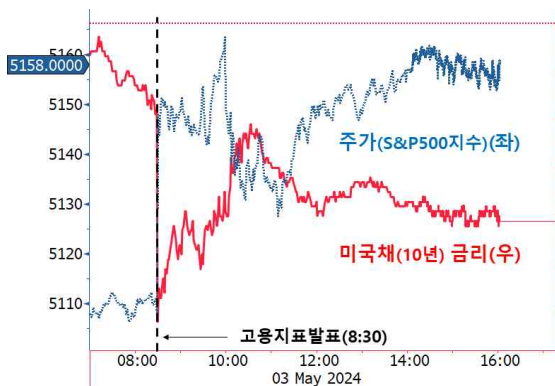


작성자 : 조광식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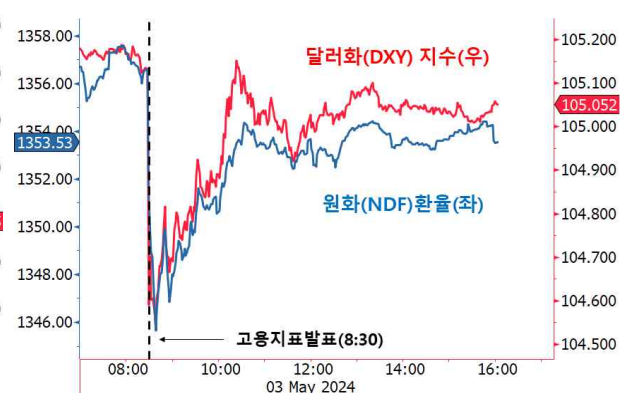
2. 금융시장 반응

- 시장에서는 취업자수 증가폭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가운데 실업률은 상승하고 임금상승 압력이 완화되는 등 노동시장의 **tight함**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
 - 취업자수는 정부부문(3월 7.2만 → 4월 0.8만), 여가·음식숙박(3월 5.3만 → 4월 0.3만) 및 건설(3월 4.0만 → 4월 0.9만)부문의 증가세가 지난달에 비해 큰 폭으로 축소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
 - 또한 직전 2개월 취업자수가 하향조정(-2.2만명)되면서 취업자수 증가폭이 3개월 이동평균 기준으로도 감소*로 전환
 - * '23.12월 21.2만명 → '24.1월 24.3만명 → 2월 26.1만명 → 3월 26.9만명 → 4월 24.2만명
 -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감소하였으나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이 하락*하였으며, 가계조사에서의 실업자수가 증가로 전환(3월 -2.9만명 → 4월 6.3만명)되면서 실업률이 상승
 - * 전년동월대비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은 21.7월 이후 처음으로 3%대로 하락하면서 최저치를 기록
- 대부분 투자은행들은 노동시장이 초과수요가 완화되며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인 것으로 평가하며 최근 견조한 데이터 연속에 따른 연준의 임금상승 압력 및 인플레이션 지속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
 - 다만 파월 의장이 선제적 금리인하 조건으로 제시한 노동시장의 예상치 못한 약화(unexpected weakening)에는 미치지 못하며 연준의 금리인하 확신까지는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기존 연준 금리경로 전망*은 유지
 - * 대부분 투자은행들은 4월 CPI발표 이후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을 7월 이후로 연기하고 금리인하 횟수도 축소
 - ※ Fed Fund Futures에 반영된 7월 금리인하 확률(전일 39% → 40%) 및 9월 금리인하 확률(전일 79% → 90%)은 상승
- 예상보다 약한 고용지표 발표(8:30am) 영향으로 금리는 하락하고 미달러화는 약세를 보였으며, 주가는 상승

미국채 금리(10y) 및 주가(S&P 500 지수)



미달러화(DXY) 및 원화(NDF)



자료 : Bloomberg

※ 시장참가자 평가

- **(JP Morgan)** 4월 고용데이터는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부진했으며, 최근 추세에 비해서도 완만하게 나옴. 취업자수(17.5만명)는 작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시간당 평균 임금상승률이 3%대로 하락하는 등 노동수요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노동시장이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임. 이민자를 감안할 때 월 취업자는 20만명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 1분기중 과열된 노동데이터를 감안할 때 금번 고용보고서는 연준에 안도감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 당사는 연준이 7월에 금리인하를 시작하여 금년중 총 3회 인하할 것으로 전망
- **(BoA)** 4월 취업자수는 17.5만명으로 예상치를 하회. 이는 대면 접촉이 많은 서비스업 고용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감에 따라 여가·음식숙박 부문에서의 고용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된 데 주로 기인. 4월 고용보고서 결과 노동시장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연준이 12월에 한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
- **(MS)** 1분기중 과열된 모습을 보였던 노동시장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점진적으로 균형을 찾아가고 있음. 이민자들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 상승을 억제하고, 임금 상승률에도 하락 압력을 가하는 등 공급측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이 지속. 당사는 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연말 실업률은 4.2%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당사는 연준이 금년중 금리를 3회 인하하는 전망을 유지
- **(Goldman Sachs)** 4월 고용보고서는 노동시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취업자수는 17.5만명으로 계절적 요인이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하회하였으며 6개월내 최저치를 기록. 특히 고용 증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 여가·음식숙박 부문의 고용은 대부분 마무리 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당사는 연준이 금년중 두차례 금리를 인하(7월, 11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
- **(BNP Paribas)** 4월 고용보고서 결과는 노동시장이 완화되면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 다만 현 수준에서 정책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주는 데에는 충분하지만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인하를 취할수 있는 수준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 향후 몇 달동안 고용이 10~15만명 이하로 둔화되고 실업률이 4.5%에 근접할 경우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
- **(Nomura)** 오늘 발표된 4월중 취업자수는 정부, 레저숙박업, 건설업 등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둔화세를 보이면서 예상치를 하회. 실업률이 상승하고 시간당 평균 임금상승률 하락하는 등 노동시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냄.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상승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금번 고용데이터는 이번주 초 발표된 JOLTS 구인건수 및 고용/퇴직률 감소와 함께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균형을 찾아가는 가능성을 높임. 다만 17.5만명의 일자리 증가세는 여전히 견조한 수준인 만큼 연준은 인내심을 갖고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 당사는 금년중 두차례 금리인하(7월, 9월) 전망을 유지
- **(UBS)** 4월중 취업자수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실업률은 상승하는 등 노동시장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임. 특히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의 둔화와 일자리 증가 감소는 최근의 견조한 데이터로 통화정책에 어려움을 겪었던 연준에 위안이 될 것으로 평가. 다만 정부부문 고용 증가세 둔화는 4월중 주 정부 예산집행전 예산 압박으로 고용이 축소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증가세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
- **(WSJ)** 4월 고용보고서에서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노동시장의 과열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임. 일자리수 증가와 퇴직자 비율이 감소하는 등 근로자 수요가 둔화되고 있음. 연준이 그동안 예상치 못한 노동시장의 악화가 발생할 경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반복하였으나, 금번 고용데이터는 연준이 생각하는 노동시장 악화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예상보다 빠른 금리인하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